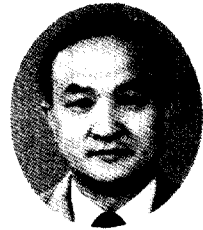


## 지난2년을 회고하며



會長 高明三

다가오는 己巳年에는 우리 會員 여러분들의 家庭에 萬福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本人이 大韓電氣學會 會長의 重責을 맡아온 지난 2년동안을 大過없이 마무리 지을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 學會를 위하여 物心兩面으로 도와주신 會員여러분, 特別會員社들, 그리고 우리 任員陣들의 뜨거운 協力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本人은 잘 알고 있습니다. 學會發展에 本人이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면 큰 영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年前 本人이 就任辭를 통하여 우리 學會의 活動이 學際的, 國際的, 그리고 創意的인 자세로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會員들이 合心 努力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學會의 未來指向의이고 內實있는 發展을 위하여 몇가지 推進事項을 提示한바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여러분의 도움으로 기대이상의 成果를 올린 것도 있고, 本人의 力不足으로 기대만큼 成果를 올리지 못한 것도 있음을 솔직히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夏季 및 秋季學術大會의 大型化가 이루어졌습니다. 1978년과 1979년에 우리 學會가 大韓電子工學會와 共同主催하고 중단됐던 夏季學術大會를 近10年만에 復活하여 작년어 이어 금년에도 兩學會 合同으로 盛了함으로써 인접분야의 學問世界에 보다 더 效果的으로 접할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작년의 경우 포항공대에서 1,312명이 등록, 참가한 가운데 총 409편의 論文이 發表되었고, 금년에는 경희대 수원 캠퍼스에서 1,017명이 등록, 참가한 가운데 248편의 論文이 發表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春秋季 두번씩 各 研究會 別로 學術大會가 개최 되어 오던 것을 작년 本人이 부임하면서 春季는 中進대로, 秋季는 定期總會와 함께 개최함으로써 會員 相互間의 친선과 學問交流의 마당을 보다 적극적으로 提供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작년의 경우 學會創立 40주년기념 學術大會를 韓電서울연수원에서 가진바, 480여명의 會員이 참가 129

편의 論文이 發表되었고, 금년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192편의 논문이 發表되었고 445 명이 참가함으로써 이제 우리 大韓電氣學會는 學術大會의 質과量 두가지 측면에서 學會의 基本活動과 機能이 완전히 定着되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學會 創立 이후 최초로 日本電氣學會의 協贊으로 국제학술분과를 개최, 일본인 學者 45명이 來韓하여 日本電氣學會와의 實質的인 學術交流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研究會 및 支部活動이 活性化 되었다는 점입니다. 研究會의 경우, 작년에 「로보틱스 및 自動化 研究會」가, 금년에 다시 「回路 및 시스템 研究會」가 創立되어 모두 11개의 研究會가 각각 활발한 學術活動을 하고 있고, 우리 學會의 日本支部가 結成 發足되어 이제 비야흐로 우리 學會도 國際化를 향한 巨步를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부에서 發刊한 지부소식지(news letter) 또한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學會 主管으로 대전 科技大에서 日本 계측자동제어학회와 협동으로 개최된 韓國自動制御 學術會議는 금년에는 기계學會가 주관하고 우리學會가 協贊하여 KAIST에서 개최된 것도 역시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세번째로, 發刊事業의 質的內實화와 英文論文誌의 創刊, 보급을 들 수 있습니다. 月刊 學會誌와 論文誌를 꾸준히 發刊해온 외에 금년에는 年2回 英文論文誌를 創刊, 全會員은 물론 世界大學의 도서관, 연구기관 277개소에 보급하여 國際學術交流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活動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번째로, 學會의 民主化和 活性化를 추진하는 뜻에서 評議員 立候補者를 250名으로 대폭 증원하여 評議員과 新任會長을 會員들의 直選으로 선출토록 定款을 改定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適否는 후일 評價의 대상이 되겠으나 보다 많은 會員들이 學會活動에 직접참여 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과 여러 任員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미흡했던 점도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會員數의 實勢面에서 本人이 就任하기 직전인 1986년말 등록회원수가 4,890명(實회원수 2,017명)이던 것이 1987년말 5,336명(實회원수 2,256명), 금년말 현재(88. 11. 30) 5,842명(實회원수 2,308명)으로 수적인 면에서는 증가되긴 했으나 實會員數 立場에서 보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로 技術專門委員會 事業은 차단장치 전문위원회의 設置만으로 그쳐 당초의 기대보다 미흡했고 금년말 產學間의 協力관계 강화의 일환으로 구상했던 座談會도 끝내 갖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任員陣들께 짐을 떠맡기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科學的이고 積極的인 처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學會가 더욱 發展할 수 있도록 本人이 평소 존경해오던 朴永文 신임 會長님을 중심으로 全任職員과 모든 會員들이 倍前의 協力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本人이 在任하는 동안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協力에 감사드리며 會員 여러분의 健勝과 우리 學會의 무궁한 發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